현불 논단

'꼰대'라는 '타임캡슐'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시대 변화 · 흐름에는 상관없이
자기 인생관대로 사는 사람들
요즘 '꼰대'라고 불리는 부류

자기 기준 맞춰 모든 것 판단
나이 · 경력 하위자 억압해

편견 등은 종교적 진리와 반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꼰대 타임캡슐'에 갇히지 말라

출가 전 언젠가 읽은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한 사람이 걷는 생활환경에서 성장했다. 그는 걷는 것 외에 탈것을 이용해 보지 못했다. 그래서 기차라는 신문명이 탄생시킨 기계를 보면서 자신은 결코 저것을 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기차를 이용하곤 했다. 기차의 신속함과 편안함을 맘껏 즐기며 살았다. 하지만 이 아들은 자동차를 보며 나는 저 것을 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의 아버지가 기차를 이용하지 않은 것처럼 그도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그의 손자는 아버지와 달리 기차는 물론 자동차도 즐겁게 이용했다. 기차보다 편리함이 많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아버지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비행기는 이용하지 않았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그에게 너무나 생소하고 불안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기차와 자동차는 물론 비행기까지 자유롭게 이용하였다. 이 집안사람들은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 이내에서만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였다.

처음 이 이야기를 읽으며 무슨 이렇게 단순하고 황당한 이야기가 있나 생각되었다. 아무리 지어진 이야기라고해도 세상을 저렇게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싶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이 이야기를 거듭거듭 생각하게 되었다. 실제 세상에는 오히려 이 이야기보다 더 단순하고 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세월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자신의 성장과정 속에서 스스로 만든 그 자신의 인생관대로만 살아가는 타임캡슐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요즘 사회적 용어로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그런 부류의 하나이다. "우리 때에는 말이야" 또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니가 뭘 알아" 등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부 기성세대는 나이나 경험 또는 지위, 경력으로 자기보다 하위에 있거나 어린사람들을 억압하고 지적한다. 이들은 자신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행동한다.

타임캡슐처럼 자신의 권한과 위력이 작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간을 멈추고 외부와 단절한 채로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이들에 대해 방임, 학대를 자행하는 사람들도 그런 부류다. 그리고 동물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은 아이들이나 동물들을 어떻게 대하든 자신의 권한과 책임이지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 국가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 동물보호법 등의 법률을 통해 이런 행위가 범죄임을 규정하고 있다. 식당이나 상점 또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갑질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다. 봉건시대의 지위인 '왕' 이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손님은 왕' 이라는 말을 철석처럼 신봉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보수적인 영역에 속하는 종교도 예외는 아니다. 종교를 배경으로 하여 사람들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면 그 병폐는 더욱 심하게 된다. 고정관념과 편견은 종교에서 이끌고자 하는 진리와 반대되는 성질의 것이다. 어떠한 명문과 근거를 가지고라도 고정관념과 편견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타임캡슐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



김형중의
붓다설법학

중도로서 설법하라

중국 당나라 때 남전선사(748~834)의 '남전선사가 고양이의 목을 벤 뜻은 무엇일까(南泉斬猫)' 란 화두가 〈무문관〉 〈벽암록〉 〈종용록〉 〈선문염송〉 등에 나온다. 화두(공안)는 조사 스님이 제자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만든 고도로 상징적이고 함축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남전 스님이 동당과 서당의 스님들이 고양이를 두고 다투는 것을 보고, 고양이를 잡아들고 "여러분이 이치에 합당한 한 마디를 하면 이 고양이를 살려주고 못하면 목을 베어 죽이겠다"고 말했다. 대중이 아무 말을 못하자 남전은 마침내 고양이를 베었다.

마침 출타 중이던 제자 조주 스님이 저녁에 돌아오자 남전선사는 낮에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들려주고 "너라면 어떻게 말하겠느냐" 하고 물었다. 조주 스님은 아무 말이 없이 짚신을 벗어 머리에 이고 나가 버렸다. 남전선사는 "네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고양이를 살릴 수 있었으련만…"이라 하였다. 〈무문관〉

'남전선사가 고양이 목을 자른 화두' 는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아주 짧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조주 스님이 발에 신어야 할 짚신을 머리에 인 것은 스승이 고양이의 목을 벤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치에 어긋난 행위임을 지적한 것이다.

위의 화두는 〈무문관〉 제1칙 '개에게 불성이 있는가(趙州狗子)' 와 상통한 화두이다. 개와 고양이가 바뀌었을 뿐이다.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있을까? 없을까?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조주 스님은 없다고 했을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是甚麽)' 이렇게 참구하는 것이 간화선(看話禪)의 정통 선법이다.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나 구도자의 기본자세는 회의(懷疑) 즉, 의문(의심)이다. 조사어록에 나타난 조사 스님의 평론은 " '있다(有) 없다(無)' 의 양단에 얽매여 집착하는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칼로 단호하게 잘라주어 깨달음의 길인 중도(中道)를 제시한 것이다"고 하였다.

인간이 사는 현상세계는 나와 너, 큰 것과 작은 것, 선악과 미추가 서로 상대적이고 이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생긴다. 승찬 조사는 '신심명' 에서 "애정과 증오하는 두 마음만 없애면 지극한 불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하였다.

법사는 진보와 보수, 지연과 학연 등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설법을 하면 안 된다. 편파적인 말을 하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청법대중은 싫어한다. 차별이 없는 평등한 마음으로 중도 정법을 설해야 한다.

〈법화경〉 '법사품' 에서 법사의 마음자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법사는 여래의 방에 들어가,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자리에 앉아서 사부대중을 위하여 설법하라. 여래의 방이란 중생을 사랑하는 자비심이요, 여래의 옷이란 부드럽게 잘 참는 인욕심이요, 여래의 자리란 진리에 대한 바른 견해인 반야공(般若空)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인 연기(緣起)가 공(空)이요 중도(中道)이다. 반야공은 차별이 없는 평등한 공의 세계를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지혜이다.

〈前 동대부여고 교장〉

社 說

승려복지제도 시행 10년에 부쳐

조계종 승려복지제도가 시행된지 꼭 10년이 됐다. 승려복지는 오랜 기간 조계종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과제로 꼽혀 왔다. 한평생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며 청정한 삶을 살아온 스님들이 나이가 들어 병고와 노환으로 고통 받다가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과 인력, 행정적인 한계로 인해 선뜻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2010년 무렵 승려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여 승가복지 TF팀이 구성됐다. 쉽지 않은 과정을 지나 승려복지제도가 완성됐고, 벌써 10년이 지났다. 처음 시행 당시 65세 이상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정했던 복지제도는 2015년 전면개정을 통해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들로 확대됐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국가제도의 틀 속에서 보편적 승가복지를 구현할 토대를 구축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일궈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지역 가입 형태를 '특례가입사업장' 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복지 일선인 교구본사간 편차를 줄이고 모범교구의 노하우를 공유해 제도적으로 활성화해야 하며, 스님과 불자들이 마음 편히 병고를 극복할 수 있는 전문요양병원도 필요하다. 다행히 승려복지회가 이를 염두에 두고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승보공양 확대도 필수적이다. 승려복지를 위해서는 출재가를 떠난 사부대중 공동체가 적극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승려복지제도를 종단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곧 종단 소속 모든 스님들의 복지증진과 스님들이 수행정진, 전법교화, 종단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다. 사부대중의 관심 속에 무궁한 발전을 발원한다.

불교성전 활용 계획 세워야

조계종 최초의 종단본 불교성전 발간이 눈 앞에 다가왔다. 최종 감수를 앞두고 종단 차원의 보급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7월 1일 전통공연장에서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서는 1인 1책 수지독송운동, 각종 법회에서의 불교성전 봉독, 불교대학에서의 교육과정 포함과 불교성전 해설사 양성, 불교성전 사경대회와 같은 다양한 대회 개최 등이 제안됐다.

이와 함께 연령별 상황별에 맞는 2차 가공 콘텐츠 제작도 의견이 나왔다. 일목요연한 목차 정리와 만화,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콘텐츠 가공, 위키디피아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각주를 달 수 있는 인터넷 불교성전 등의 제안이 그 것이다.

그동안 종단은 불교성전 편찬에 매달려 왔다. 불교성전 편찬은 포교원이 주관부서로 진행하고 있지만 총무원장이 편찬위원장을 맡는 등 종단사업으로 진행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급과 활용 또한 종단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불교성전 편찬불사는 한국불교 신행과 포교를 위한 대작불사다.

어렵게 만든 불교성전이 제대로 읽혀지기 위해서는 종단의 제도권과 비제도권, 출가자와 재가자, 남녀노소를 넘어 모든 불자들이 함께 수지독송하는 분위기와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수지독송도 종이책 뿐만 아니라 E북과 웹콘텐츠 등 방식을 다양화 해야한다.

21세기 우리시대 언어로 새로운 불교성전 탄생이 목전에 있다. 조계종 불교성전은 불자들의 신행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매개가 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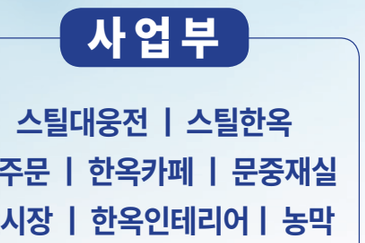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국내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저렴한 비용!!
사업부
스틸대웅전 | 스틸한옥
일주문 | 한옥카페 | 문중재실
전시장 | 한옥인테리어 | 농막




목재대비 유사도 90% 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